



경쟁에서 이기기

책과 영화로 나온 히든 피겨스(Hidden Figures)는 우주 개발 프로그램 초창기 나사(NASA)에서 “컴퓨터”(계산가)로 일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실화를 들려줍니다. 훗날 대통령으로부터 자유 메달을 받게 될(아래 사진의) 캐서린 존슨이, 우주 캡슐의 궤도와 목표 지점 근처 바다에 빠질 수 있도록 재진입 궤도를 서술하는 미분방정식을 푸는 장면은 영화에서 기억에 남을 장면 중 하나입니다. 캐서린의 작업을 이용하여, 오늘날 컴퓨터라 부르는 기계가 정확한 궤적을 계산하였습니다. 요즘 세상이라면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산의 정확성에 목숨이 걸려 있던 우주 비행사 존 글렌은 인간 컴퓨터 캐서린 존슨이 기계의 계산 결과를 검증해 줄 것을 고집했습니다. 검증 후에야 존 글렌은 우주로 나갔다가 집으로 귀환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히든 피겨스는 성공담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수학에 종사하는 여성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적는데 논리적 사고를 그렇게 강조하는 직업치고는 알맞기까지 합니다. 미래의 캐서린

존슨들이 더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북돋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이 이 분야에서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더는 숨겨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학계의 많은 이들이 노력 중입니다.

더 알아보기:
Hidden Figures,
Margot Lee
Shetterly, 2016.

Translation courtesy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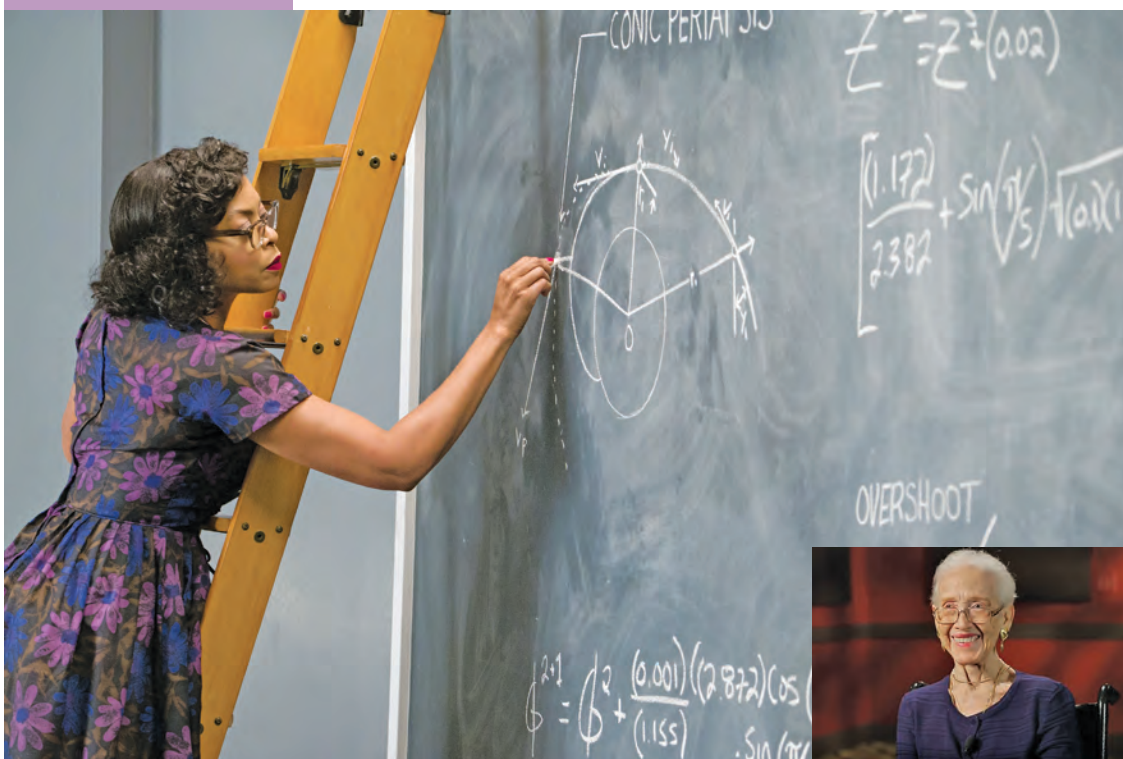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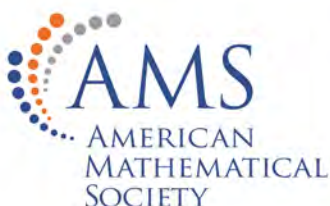


Image: ©20th Century Fox, inset: NASA Langley Research Center.

Listen Up!



MM/I40/KR



Mathematical Moments 프로그램은 과학, 자연, 기술,
그리고 인간의 문화에서 수학이 하는 역할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이해를 촉진합니다.

www.ams.org/mathmoments